



1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결승에서 한국 마지막 주자 김길리가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나 된 여자 쇼트트랙...8년 만에 '왕좌 탈환'

개최연도/개최지	출전선수	성적
1994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전이경 원혜경 김소희 김윤미	금
1998 일본 나가노	전이경 원혜경 안상미 김윤미	금
2002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최민정 최민정 박혜원 주민진	금
2006 이탈리아 토리노	진선유 변천사 전다혜 최은경 강윤미	금
2010 캐나다 밴쿠버	조해리 김민정 이은별 박승희 최정원	실격
2014 러시아 소치	박승희 심석희 김아람 조해리 공상정	금
2018 대한민국 평창	최민정 심석희 김아람 조혜리 이유빈	금
2022 중국 베이징	최민정 이유빈 김아람 서휘민	은
2026 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	최민정 김길리 노도희 심석희 이소연	금



최민정·심석희 화합 속 김길리 마침표...3000m 계주 금메달 네덜란드 충돌 위기 딛고 이탈리아·캐나다 제치며 극적 우승

한국 여자 쇼트트랙이 2018년 평창 대회 이후 8년 만에 금메달을 차지하며 '왕좌 탈환'에 성공했다.

최민정, 김길리(이상 성남시청), 심석희(서울시청), 노도희(화성시청)가 호흡을 맞춘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은 19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에서 4분 4초 014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 '개최국' 이탈리아(4분 4초 107)와 '강호' 캐나다(4분 4초 314)를 따돌리고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특히 남녀 대표팀 '통합 주장' 최민정은 레이스 도중 바로 앞에 있던 네덜란드 선수가 넘어지면서 충돌 위기가 있었지만 재치 있게 빠져나가면서 금빛 질주의 발판을 마련했고, 김길리는 최민정의 바통을 이어받아 선두로 치고 나간 뒤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하며 금메달을 완성하는 멋진 플레이를 펼친 게 인상적이었다.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는 한국 대표팀에 적수가 보이지 않는 대표적인 효자종목이었다. 한국은 2022년 베이징 대회까지 역대 9차례 열린 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에서 금메달 6개와 은메달 1개를 따며 압도적인 성적을 냈다. 1994 릴레함메르 대회부터 4연패를 이뤘고 2014 소치 대회와 2018 평창 대회에서 다시 연속 우승을 거뒀다.

출전하는 대회마다 최고의 성과를 냈던 여자 계주 대표팀은 평창 대회 이후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다.

네덜란드, 캐나다 등 외국팀들의 성장으로 전력이 평준화하고, 평창 대회에서 고의 충돌 의혹으로 대표팀 조직력이 흔들렸다.

한국은 2022 베이징 대회 여자 3000m 계주에서 네덜란드에 왕좌를 내주고 더 가파르게 하락세를 겪었다. 2024-2025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투어 1-6차 대회에선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한 만큼 부진했다.

대표팀은 주장 최민정(성남시청)의 결단으로 다시 중심을 잡기 시작했다.

최민정은 그동안 평창 동계 올림픽 고의 충돌 의혹 피해로 마음의 상처를 합치면서 다시 대표팀 선배 심석희(서울시청)와 힘을 합치지 않았다.

계주에서 함께 뛰어도 서로 간 접촉을 피했다. 이 문제는 대표팀 조직력은 물론, 경기력에도 큰 영향을 줬다. 키가 큰 심석희가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는 최민정을 밀어주지 못하면서 전력을 극대화할 수 없었다.

그러나 최민정은 2025-2026시즌을 앞두고 결단을 내렸고, 두 선수가 힘을 합치면서 다시 호흡을 맞췄다.

그 결과 여자 대표팀은 2025-2026시즌 월드컵투어 1차 대회 여자 3000m 계주에서 우승하는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내며 자신감을 찾았다.

두 선수는 지난 15일 열린 여자 3000m 계주 준결승에서 합심해 2위를 이끌었다.

그리고 결승에서도 세계 밀어주고 쏘살같이 달리며 금메달을 합작했다.

이날 대표팀은 결승선 16바퀴를 남기고 4개 팀 중 4위로 달리기 앞서 있던 네덜란드 선수가 넘어지면서 그 여파로 선두 그룹과 거리가 벌어졌다.

압축한 상황에서 최민정, 김길리(성남시청), 노도희(화성시청), 심석희는 있는 힘을 다해 추격을 펼쳐 따라붙었다.

그리고 결승선 5바퀴를 남기고 직선 주로에서 심석희가 최민정을 힘차게 밀어줬다. 탄력을 받은 최민정은 캐나다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두 선수가 힘을 합치자 역전 드라마의 발판이 마련됐다. 이후 마지막 주자 김길리가 선두 이탈리아마저 제치면서 극적으로 금메달을 따냈다.

최민정과 심석희는 경기가 끝난 뒤 태극기를 들며 감격스러워했다. 2018 평창 대회 이후 8년 만에 올림픽 무대를 밟은 심석희는 평평 눈물을 쏟아냈다.

대표 선수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순간이었다. 한편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동메달리스트인 유승은(성북고)은 대회 마지막 종목인 슬로프스타일에서는 34.18점으로 참가자 12명 중 최하위로 마치며 시상대에 오르지 못했다.

10일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에서 3위에 올라 한국 여자 스노보드 선수 처음으로 올림픽에서 입상한 유승은은 주 종목이 아닌 슬로프스타일에서도 결선에 올라 '말티 메달'에 도전했으나 3차 시기 모두 연기를 제대로 마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최민정
출생 1998년
소속 성남시청

한국 선수 올림픽 최다 메달 6개
최민정(스피드스케이팅) 김수영(양궁) 이소연(스피드스케이팅)

최민정 동계올림픽 메달 보유 기록

2018 대한민국 평창
금 1,500m 은 3,000m 계주

2022 중국 베이징
금 1,500m 은 1,000m 은 3,000m 계주

2026 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
금 3,000m 계주

한국 선수 동계올림픽 최다 금메달 4개
전이경(쇼트트랙) 최민정(스피드스케이팅)

연말뉴스 자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KIA 새 얼굴 데일 "매일 1%씩 발전하고 싶다"

박찬호 이적 공백 메울 내야 카드 "높은 출루율로 팀에 기여하겠다"

'호주 국가대표' 제리드 데일이 KBO리그 성공기를 위해 '열공중'이다.

KIA 타이거즈는 아시아쿼터 첫 선수로 내야수 제리드 데일을 선택했다. 다른 9개 구단이 투수로 아시아쿼터를 채웠지만 KIA만 유입할 타자를 낙점했다.

이유는 확실하다. 데일이 충분히 KBO리그에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는 점이 우선 이유다.

데일은 호주 멜버른 에이스스 소속으로 지난 10월 울산 교육리그에 참가해 KIA 등 KBO리그 팀들과 대결했다. 박기남 수비 코치의 눈에 데일의 남다른 수비 실력이 포착됐고, 그는 11월 일본 오키나와 마무리캠프에서 이범호 감독 앞에서 직접 실력 점검을 받았다.

코칭스태프의 좋은 평가를 받은 그는 KIA의 빈틈을 채울 수 있는 최고의 퍼즐로 주가가 상승했다.

주전 유격수 박찬호가 FA를 통해 두산으로 이적하면서 내야에 공백이 생겼고, 새 시즌을 준비하는 KIA에는 내야 재구성이 가장 시급한 숙제가 된 것이다.

데일은 실력과 팀 상황이 맞물리면서 이견 없는 0순위 KIA 유니폼을 입었다. 일본 야마미오시마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프링 캠프에서도 데일은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수비는 물론 공격에서도 데일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독살기' 김선빈도 "잘할 것 같다. 수비와 공격에서도 기대가 된다"고 말할 정도로 동료들도 데일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데일도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개막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다.

데일은 "스프링캠프 잘 치르고 있다. 힘들기는 하지만 보람 있다. 훌륭한 선수가 많아서 좋은 시즌이 기대된다"며 "최대한 많이 배우고 싶다. 배우는 자세로 하고 있다. 매일 1%씩 발전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배움을 이야기한 그는 코칭스태프는 물론 동료들을 통해서도 배우고 있다. 내야의 '만행' 김선빈도 데일이 눈여겨보는 선수다.

데일은 "김선빈은 정말 좋은 선수다. 콘택트 능력이 뛰어난 타자라서 그 부분을 알려주고 있다.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 높은 출루율로 역할을 하고 싶다"며 "김선빈이 수비하는 것만 봐도 공부 가 된다. 움직임을 보면서 배우고 있다. 김선빈은 물론 다른 선수들에게도 배우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2019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마이너 계약을 맺고 트리플A에서 뛰었던 그는 지난해에는 일본 NPB의 오릭스 버팔로스스의 육성 외국인 선수로 아시아 야구도 경험했다. 경험이라는 좋은 자산을 가진 그는 조금은 다른 한국 야구를 경험하면서 한 단계 도약을 노리고 있다.

"KBO는 세계적인 리그 중 하나다. 지난해에도 많은 이들이 KBO를 주목했고 나도 경기를 보면서 뛰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열망이 컸다"며 KBO리그 도전 이유를 밝힌 그는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일본이 더 세밀한 것 같다. 한국식 야구 스타일을 배우는 중이다. 일본과 한국의 수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열심히 준비하고 좋은 경기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팀이 이길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싶고 나의 커리어도 성공적으로 쌓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또 "KIA의 선택을 받아서 영광이고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야구를 정말 사랑하는 팬들이라고 들었다. 팬들을 만날 생각에 벌써 기대된다. 경기 보러 챔피언스필드 많이 오시면 좋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데일은 호주 국가대표로 발탁되면서 리그가 아닌 WBC 무대를 통해 한국팬들에게 첫선을 보일 전망이다.

C조에서 편성된 한국과 호주는 3월 9일 오후 7시 일본 도쿄돔에서 1라운드 최종전을 치른다.

데일은 28일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캠프 연습경기 생중계 3월 1일부터 SOOP·가티비로

KIA 타이거즈의 스프링캠프 연습경기를 생중계로 만날 수 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2차 스프링캠프를 치르는 KIA가 3월 1일 화환전을 시작으로 2일 삼성, 5일 KT, 6일 LG와의 연습경기 4경기를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SOOP'을 통해 생중계한다.

KIA 출신의 장성호 KBSN 해설위원이 4경기 해설을 담당하며, 영상은 경기가 시작되는 오후 1시부터 송출된다. 경기 전체 영상과 하이라이트 영상 등은 구단 공식 유튜브 채널인 '가티비'에도 업로드된다.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김도영과 KIA의 맞대결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KIA는 2월 24일 오후 1시에 진행되는 WBC 대한민국 국가대표팀과의 연습경기도 가티비를 통해 생중계할 방침이다. 대표팀과의 맞대결은 가티나 구장에서 원정경기로 진행되고, KBO팀과의 4경기는 KIA의 캠프지인 오키나와 컨구장에서 열린다.

한편 일본 가고시마현 야마미오시마에서 1차 캠프를 소화하고 있는 KIA는 22일 오키나와로 이동해 2차 캠프를 치르게 된다. 야마미오시마에서 체력·기술·전술 훈련 등을 통해 워밍업을 한 KIA 선수단은 오키나와에서는 실전을 소화하며 본격적인 엔트리 경쟁을 벌이게 된다.

KIA는 오키나와 연습 경기와 훈련을 통해 2026시즌 청사진을 그린 뒤 3월 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이어 3월 12일 SSG 랜더스와의 홈경기를 시작으로 시범경기 일정에 돌입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